

마늘 생산량 증가에도 시세 웃돌아

마늘 가격 너무 높으면 중국산 수입 확대 빌미 제공 가능성 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지와 도매가격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마늘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늘 가격이 높은 것은 단기적으로 공급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주요 민감 품목인 마늘 가격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생산생산량 증가에도 수입 마늘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줘 중장기적으로 국내 마늘산업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의 마늘 생산량이 유례없이 증가한 상황인 점과 통마늘 가격에 비해 깎마늘 가격은 억제되고 있다는 것도 마늘 산업에 적신호로 얹히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확정 발표한 마늘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지난해 27만5549톤 대비 2만18023톤(10.2%) 증가한 30만3578

톤이었다.

작황은 부진했지만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럼에도 마늘 가격대는 지난해 시세를 웃돌고 있다.

aT 농산물유통정보(kamis.co.kr)에 따르면 7월 한 달 난지 1kg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6020원으로 지난해 7월의 5977원보다 높은 단가가 형성됐다. 이는 산지 가격부터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행히 지난해 7월 마늘 수급조절매뉴얼 기준이 통마늘에서 깎마늘로 바뀌어 수급조절매뉴얼 상 7월 경계 단가(6385원)를 조금 넘어서고 있을 뿐이지 통마늘 기준을 적용할 시 7월의 통마늘 도매가격 6020원은 삼각 단계(5517원)를 크게 웃돌아 생산량 증가에도 TRQ(자유관세할당) 운영에 직면할 수 있었다.

우선 산지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것

에 대해 통계의 정확도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생산량보다 통계청이 조사한 생산량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계청은 보통 보수적으로 통계 조사를 하고, 산지에 서도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은 인지하고 있어 통계청 생산량보다 실제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량 증가에도 산지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에 대해 농가 기대 심리에 편승해 가격 상승을 조장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강하다.

마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마늘 가격이 높아 올해도 기대 심리가 상승한 농가 심리에 편승해 특정 산인과 일부 농협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현재의 가격대가 형성된 것은 마늘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 마

늘이 투기 산업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깎마늘은 가격이 억제되고 있지만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깎마늘까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근래의 견고추 시장처럼 결국 소비 시장에서 국내산 마늘이 외면 받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에서 마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 물량이 국내 시장에 대거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

농경연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근 몇 년간 마늘 가격이 좋아 올해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어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내산 마늘의 소비지 가격이 높아지면 중국산 물량이 국내로 대거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재용 기자

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

전주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이 오는 16일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조합 임원진 및 설계사·시공사 선정과, 시공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일정과 관해 예비 조합원들의 결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결성은 사업 예정부지 토지주의 80% 이상 동의와 예정 세대 수 50% 이상 조합원 모집이 이뤄져야 주택법에 의해 결성할 수 있다.

현재(가칭)기린로지역주택조합은 토지 2996㎡, 동이수가 구비됐고, 예정 세대수 348세대 중 50% 174세대의 예비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창립총회에 앞서 지난 1일 건축심의 신청(도시과, 소방서 협의)을 낸 뒤 3일 교통의견, 9일 교통사전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30일에는 교통, 건축 통합심의를 예정돼 있다.

기린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진북 신동아파밀리에’는 전주도

심권 첫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29층으로 건설되며 공급 물량도 모두 전용면적 59㎡, 78㎡, 84㎡ 등 선호도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특히 3.3㎡당 600만원대인 조합원 1차 모집가는 전주지역 평균 분양가인 750~850만원보다 낮게 형성돼 미래 가치를 높였다. 때문에 ‘진북 신동아파밀리에’ 조합원들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시세차익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다양한 버스노선은 물론 전주종합버스터미널, 전주역,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전주IC, 개통된 KTX호남선 등 시설향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기린대로 일대는 전주의 관광서가 밀집해 있으며 교육 환경도 뛰어나고 생활환경도 편리한 것이 장점”이라며 “전주 도심권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눈여겨볼만하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회장 선거 추대형식 전환

출마 후보자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선이 예상됐던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회장 선거가 추대형식으로 가락이 잡힐 전망이다.

8일 전북도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회장에 출마 표를 던진 김태경과 송영석 부회장 가운데 투표를 통해 단독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투표에는 운영위원 15명과 회장단 4명 등 총 19명이 전원 참석키로 했으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만 차기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양 후보자들도 합의했다.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후보자가 결정될 경우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던 차기 회장 선거가 단독 출마후 대표회원의 추대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써 협회 내부에서 우려됐던 경선과정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회장선출이 협회의 단결과 결속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단독후보 투표 결정은 이광환 회장이 제안해 양쪽 후보자들이 수락하면서 이뤄졌으며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루하게 이어졌던 후보자들간 양보공방이 매듭질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직 출마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명의 후보자가 남아있지만 양쪽 부회장 가운데 단독후보자가 결정되면서 추대로 차기회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건설인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차기회장 선거가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도내 중소기업 흡소핑 판로확대 지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북 상품 흡소핑 방송 지원 사업 - NS흡소핑 선정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명 채널인 NS흡소핑, 흥앤소핑, 공영흡소핑을 통해 제품의 브랜드 홍보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방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NS흡소핑 선정평가는 10일 진행하며 평가방법은 흡소핑 담당 MD와 1:1 면담 형식으로 제품의 구성 및 가격·품질 경쟁력 등 공정한 평가를 통해 도내 우수 기업 중 4개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1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ita.kr)나 전화 문의(국내마케팅팀 ☎063-711-2032)로 확인할 수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흡소핑 방송지원 사업으로 전북 우수상품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중소기업의 상품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오프라인(할인 마트)을 비롯한 타 유통 채널의 판매 증대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세계적인 육종학자 고(故) 우장춘 박사 유품 한자리에

농진청, 유품 영구 보존위해 국가기록원에 전달

우리나라 농업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세계적인 육종학자 고(故) 우장춘 박사의 유품을 한데 모아 영구 보존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초대원장이자 우리나라 원예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우장춘 박사 유품을 국가기록원에 전달하는 기념식을 8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에서 가졌다.

우장춘 박사 유품은 나팔꽃 조사 기록장, 나팔꽃 표본, 연구노트, 일본 고서, 문화포장증과 관련 사진 등 총 713점이다.

나팔꽃을 조사한 교배기록장(1935)은 26권에 달하며 나팔꽃 표본은 압화판 등 17종 630장, 사진 3종 14장 등이며, 연구노트는 나팔꽃 등 13권, 일본 고서는 기술회집지 제2호(明治36년12월) 등 14권이 있다. 그리고 문화포장증과 관련 사진(장례식 사진 등) 4종 15장이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우장춘 박사 연구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유품을 찾아 한

데 모으기로 결정했으며, 수소문 등 여러 방법으로 우 박사의 장남 스나가 모토하루씨와 어렵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

일본에 있는 장남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찾아가 협조를 구한 끝에 우 박사 유품 모두를 기증받았다.

우장춘 박사의 유품 기증은 우리나라 원예 육종산업을 위해 헌신한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그동안 흩어져있던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연구 자료를 한데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우장춘 박사는 대한민국 정부 요청으로 1950년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했으며, 1953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신인 중앙원예기술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품종개량 연구에 전념해 자분과 기술 부족으로 황폐화된 1950년대 우리나라 농업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또한 학위논문에서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 새로운 식물인 유채



우리나라 농업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세계적인 육종학자 고(故) 우장춘 박사의 유품을 한데 모아 영구 보존한다.

를 만들어냄으로써 서로 다른 종이 교배를 통해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종의 합성’ 이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기불화합성과 음성 불임성을 이용해 배추, 양파 등의 일대잡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 육종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 감귤, 강원도 감자 등 다양한 품종을 개량해 보급함으로써 전쟁 후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국가기록원은 유품을 서울기록관에 보존하면서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국가기록원 누리집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우장춘 박사의 친필 연구 자료와 결과물은 세계적인 육종학자로서의 업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로 우리나라 육종 역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선북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